

세계 역사와 인류의 삶을 격변시킨 '책의 지도'

세상을 바꾸고 고전이 된 39

김학순 지음

1973년 미국 오클라호마대 영장류 연구소가 흥미로운 연구에 나섰다. 15살 집팬지에게 수화(手話)를 가르쳐 동물의 지적 한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연구팀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140여 개의 낱말을 집팬지에게 가르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낱말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였다. 이 집팬지가 맨 처음 표현한 말은 "나를 놓아달라"(Let me out)였다고 한다. 자유를 향한 갈망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절대 가치'임을 일깨우는 연구 결과다. 만약 집팬지가 글을 알았다면 책을 쓰지 않았을까?



변시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논어'(공자)부터 '꿈의 해석'(지그문트 프로이트·1900년), '제3의 물결'(앨빈 토플러)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와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판단되는 39권의 책을 ▲자유와 인권의 햇불을 들다 ▲정치철학과 국제질서를 세우다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다 ▲경제혁명의 주춧돌을

놓다 ▲신의 자리에 인간이 서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디스토피아를 그리다 등의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코페르니쿠스·1543년), '제2의 상'(시몬 드 보부아르·1949년)과 같이 출간 당시 금서(禁書)로 묶였거나 '국부론'(애덤 스미스·1776년)과 같은 베스트 셀러였거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루크레티우스·B.C 50년)처럼 150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빛을 본 '혁명적인' 책들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타인의 사슬에 묶인 노예다."

이런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1762년)은 프랑스

혁명의 교과서가 됐다. 프랑스 혁명으로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는 "내 왕국을 무너뜨린 놈은 루소와 볼테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토피아'(토마스 무어·1516년)와 '상식'(토머스 페인·1776년),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1859년), '시민의 불복종'(헨리 데이비드 소로·1849년) 등 저술은 미국 독립운동과 프랑스 등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민주화를 갈망하던 한국사회에서는 '자본론'(칼 마르크스·1867년)과 '역사란 무엇인가'(E.H 카·1961년) 등이 읽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제3의 물결'(앨빈 토플러)을 읽고 미래 정보와 사회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



1933년 5월 10일, 독일 나치 정권은 베를린 베를강에서 헤밍웨이, 브레히트 등 비독일계 작가와 학자들이 쓴 2만5000여권의 책을 불태웠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저자는 고전 소개 말미에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 책과 영화를 덧붙여 인문학의 바다에 발을 내디딘 독자들의 행보를 넓

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효형출판·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삶의 지혜가 함축된 명문장 책을 읽고 직접 베껴보세요

이토록 멋진 문장이라면

장석주 지음

시인 장석주는 다독가다. 그는 책 읽기란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책에서 만나는 명문장은 '지혜와 인생의 정수를 함축된 구조 속에 담아낸 것'이다.

생명의 리듬을 담고 있는 문장, 흐르고 스쳐가는 어떤 절대의 문장, 감각적인 기쁨과 충만을 담은 문장, 영혼을 울리면서 강력한 존재 자신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자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허균이 입정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가 세걸음 째에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그에게 롤리타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첫문장은 가장 인상적인 소설의 문장 중 하나다. 장 씨가 펴낸 '이토록 멋진 문장이'는 톨스토이, 함민복, 괴테, 신영복, 소로 등 51명 작가의 책에서 뽑아낸 51개의 명문장을 담고 있다. '필사, 나를 물들이는 텍스트와의 만남'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이 특별한 건 책에 직접 글을 베껴 쓸 수 있는 빈 페이지를 첨가한 점이다. 책에서 뽑아낸 명문장을 소개하고,



정을 다스려주는 명문장, 인생을 깨우쳐 주는 명문장, 생각을 열어주는 명문장, 감각을 깨우는 명문장 등 5개의 카테고리별로 엮여져 있다.

그가 문장을 뽑아낸 책은 박완서의 '호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함민복의 '미안한 마음',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칼립 지브란의 '예언자' 등이다.

저자는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바쁜 사람들도/군선 사람들도/바람과 같은 사람들도/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어린 것들을 위하여/난로에 불을 피우고/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저녁바람에 문을 닫고/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를 꼽고, '아버지에 맞서 반항했던 미숙하고 치기 어린 시절을 지나 장년이 되니 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같다'고 썼다. <추수밭·1만38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시인이 쓴 해설을 덧붙였으며, 바로 글을 따라 써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감정을 다스려주는 명문장, 인생을 깨우쳐 주는 명문장, 생각을 열어주는 명문장, 감각을 깨우는 명문장 등 5개의 카테고리별로 엮여져 있다.

그가 문장을 뽑아낸 책은 박완서의 '호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함민복의 '미안한 마음',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칼립 지브란의 '예언자' 등이다.

저자는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바쁜 사람들도/군선 사람들도/바람과 같은 사람들도/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어린 것들을 위하여/난로에 불을 피우고/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저녁바람에 문을 닫고/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를 꼽고, '아버지에 맞서 반항했던 미숙하고 치기 어린 시절을 지나 장년이 되니 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같다'고 썼다. <추수밭·1만38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압축성장의 고고학=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축적된 사회조사 자료를 집대성한 책. 1960년대부터 수행된 사회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학력 인플레이션, 노령화, 사회복지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점검했다. 엄선된 자료를 활용해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했고 도표를 삽입함으로써 인용된 자료들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울아카데미·3만4000원>

▲마흔, 두 번째 스무 살을 준비하다=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 어디서든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들의 서글프고도 해묵은 고민에 인문학의 지혜를 더해 위로의 메시지로 전한다. 저자는 중년들에게 '정춘을 앞에 기죽지 말라'고 말하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삶의 여유를 부르는 지혜를 강조한다. 정춘을 부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라며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중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팬덤북스·1만3000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류시화 시인이 등단하고 10년이 지나서 낸 첫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와 5년 뒤에 펴낸 두 번째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다시 15년이 흐른 뒤에 출간한 세 번째 시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에서 시인이 선정한 대표시 98편을 한 권의 시선집으로 엮었다. 시선집의 시편들은 그만의 언어 감각과 뛰어난 서정, 깊이를 획득한 단순한 언어로 주제와 객체가 하나 되는 세상



을 노래한다. <열린문·1만2000원>

▲상속전쟁=10억원을 상속받고도 세금 한 톨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 원을 상속받고도 1000만원의 상속세에 고스란히 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해 절세를 하고 분쟁을 피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고 안심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다가 불시에 상속세에 당한다. 이 책은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의 자격부터 상속·증여세 계산, 올바른 유언의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등 상속의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길벗·1만4500원>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월가 점거 운동의 지도자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의 진짜 민주주의 프로젝트.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대담하고 새로운 생각을 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허구이고 1%의 필요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고,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 방법과 전략적 모델들을 제시한다. <이책·1만6000원>

▲대재난=프랑스 SF문학의 아버지이자 선구자이며, 모든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정규과정에서 한 번씩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SF교과전작가 르네 바르자벨의 대표작 '대재난'이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대재난'은 2052년 미래의 어느 날,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원이 사라지면 서 맞이하게 된 세계의 종말과 원시시대로의 회귀를 특유의 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체와 묵직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SF디스토피아 소설로, 프랑스식 SF문학의 태동을 알린 작품이다. <은행나무·1만3000원>

어린이 책



▲감자 좀 달라고요!=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알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하나는 아이야=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알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하나는 아이야=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알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하나는 아이야=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알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하나는 아이야=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알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p>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p>	<p>해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 4(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뷰장례식장) 이성희 ☎010-8542-3366</p>	<p>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팥종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010-2494-2974</p>	<p>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공합, 부처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p>	<p>북구모아공인중개사 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욱 ☎010-3624-0058</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회암관 북구 두암동 예텐병원 옆 정영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p>	<p>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귀동구청 1층) 핸드폰, 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p>	<p>미정 동구 금남로 2가 귀동구청 뒤 옛날 구미항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p>
<p>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반복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p>	<p>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당앞) 경조화환, 동·서양만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p>	<p>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서원식당 동구 금남로 2가 귀동구청앞골목 백반, 생선김, 오리로스, 병치조림, 갈치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김영호 ☎062)227-9769</p>